

2017년 11월 23일, 애월읍 수산리 수산리노인회관, 강경민 조사.
송옥희(여, 1938년생, 애월읍 수산리)

- 줄거리: 수산리에 살던 딸이 봉성리로 시집을 갔다. 꿈에 팽나무 귀신이 나와서 누가 나무를 자르려고 하니 가서 못 자르게 말려 달라 하였다. 딸은 꿈에서 깨자마자 친정으로 달려가 나무를 자르지 못하도록 말렸다.

[제보자] 시집 갓인디. 귀신이 폭낭을 끊없던 골으니까. 뜰신디 빨리 강 그 폭낭 끊지 못 허게 허렌. 경 허난 버선창에 들으멍 우리 집 주끗디 오라낫덴 골읍디다. 폭낭 끊지 못허게 허젠.

[조사자] 누가 집 근처에 오라난마씨?

[제보자] 그 뜰고라 귀신이 나오랑 골은 거라. 귀신이 나오라네.
“빨리 강. 그 폭낭 끊지 못허게 허라.”

[조사자] 여기 살던 뜰인디?

[제보자] 응. 도노미 시집 갔는데. 옛날에.

[조사자] 도노미가 어디꽈?

[제보자] 봉성. 옛날 말로 도노미.

[조사자] 아. 뜰한티 귀신이 나타낭으네.

[제보자] 뜰한티 귀신이 나오라네.

“그 폭낭 끊없이메 끊지 못허게 너 강 골으라.”

경 허난. 버선창에 그 옛날 자갈 와갈와갈 허는디 들려와낫젠텐.

[조사자] 그 얘긴 예전에 들어 난 얘기지예?

[제보자] 응. 그건 주끗디서 들어낫어. 이 폭낭은 건들이지 못현덴. 지금 그 폭낭이 나 둘레로 세 둘레는 더 가사 헐 거라. 경 허난 그 폭낭이 애월에 신고 허니까 그 폭낭을 잘랐어. 그 굴튼 거.

[조사자] 굴튼 거?

[제보자] 응. 거 썩어들언 게 굴틀 거 아니. 폭낭이 경 허난. 엉삭허나네 애월서 그걸 잘랐어. 이제 폭낭을. 그 췌멘사 박앗인디사. 이젠 잘랐는데 그 폭낭을 끊젠 허나네. 잣이난 뜰고라 귀신이 나오란. 빨리 강 그 폭낭 못 끊게 허렌. 경 허난 톱데엉 끊젠 햅이난. 뜰이 그 봉성서 들려오라네 그 폭낭 안 끊엇젠헷어.

- 핵심어: 귀신, 뜰(딸), 폭낭(팽나무), 수산리, 봉성리, 도노미, 꿈, 애월